



# 달빛 아래 '밤의 미술관'이 문을 연다

모든 미술관이 문을 닫는 밤 9시, '밤의 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편안한 캠핑 의자에 앉아 건물 벽면으로 쏟아지는 미디어 파사드 작품을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공룡과 물고기들이 등장하는 어린이 대상 작품부터 현대적 느낌이 물씬 풍기는 작품까지 다양한 음악과 어우러지며 펼쳐지는 미디어 쇼다.

광주 소촌아트팩토리에서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밤의 미술관'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여름 더위를 피해, 달빛 쏟아지는 야간(오후 8시~밤10시)에 관람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열리는 소촌아트팩토리는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에 선정돼 리모델링 과정을 거친 후 지난 2016년 문을 열었다. 1980년대 조성된 소촌농공단지에 자리한 아트팩토리는 민방위 대피시설 등으로 사용되던 건물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 역할을 했던 아시아문화마루(콘서트 할레 광주)의 폐 컨테이너 27개를 기증받아 독특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밤의 미술관' 행사는 수명대회를 맞아 특별히 꾸민 프로그램이다. 미디어 파사드 작품은 컨테이너 박스를 자유롭게 활용해 조성한 공간의 특성을 살려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주)푸름엔터테인먼트는 '바다스캐치',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 마라톤'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상연 중이다. 25일까지 열리는 미디어아트 체험 '꿈꾸는 대로-상상플러시'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실시간으로 화면에 쏘아주는 기획이다. 또 15일부터 31일까지 '아직 당신의 밤은(Still on your night)'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서는 김명우, 조은솔, 유승용, 최용석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10일과 17일에는 오후 5시부터 '드로잉 파티 @소촌' 프로그램이 열린다. 테라코타 만들기 체험 공공미술 프로젝트 '모퉁이에서', 내담대로 드로잉 '잔디밭 아플리', 소셜 '그리스인 조르바'를 모티브로 한 공감능력 향상 교육댄스 드로잉 '100인의 조르바'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있다. 오후 7시30분에는 국악 공연과 어우러진 국악사운드 드로잉 행사도 펼쳐진다.

작품 감상은 공간 곳곳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특히 소촌아트팩토리가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목공예 프로그램에 통해 완성된 '나무 오두막'은 포토 스폿으로도 인기가 높다.

'켜켜이 쌓인 시간을 저장하고 새로운 활용법을 찾아 공간을 재구성, 새로운 문화영토를 개척하고 있는' 소촌아트팩토리에는 의미있는 공간들이 많다. 여러개의 컨테이너를 활용한 큐브미술관은 독특한 구조와 높은 층고가 인상적이다. 또 유리창을 통해 건물 바깥의 푸른 나무와 하늘 등을 고스란히 만날 수 있어 편안함을 준다. 작가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 다양한 전시를 만들어 내기에 좋다.

갤러리에서는 지금까지 18차례의 '광산아트플러스' 시리즈를 통해 한국화·서양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 초대전이 열렸다. 8

31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 드로잉파티도 진행  
작품과 음악 어우러진 '미디어 파사드' 감상  
27개 컨테이너 박스·유노윤호 도서관 인기

일까지는 김병균 작가의 '관조-木'전이 진행되며 이후 '밤의 미술관' 행사 기간 동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아트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또 다른 공간은 광주 출신인 동방신기 유노윤호 팬들이 조성한 작은 도서관 'HUG'다. 도서관 이름은 동방신기의 히트곡 이름에서 따왔다. 지난해 일본 등 해외 팬들이 1000여권의 책을 기증해 문을 연 도서관은 현재 1800권 정도의 책을 구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예술 관련 서적을 중점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편안한 빈백과 책상에 앉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팬클럽이 유노윤호의 싱글 1000장을 기증, 아트팩토리를 찾는 이들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본관 건물 지하에 자리한 연습실 '아르코공연연습센터@광주'는 쾌적한 환경이 돋보인다. 특히 100평규모 대형 연습실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 인기를 모으고 있다. 2층에는 20평 규모의 연습실과 리딩룸, 세미나실 등도 자리한다. 1층의 커뮤니티 카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밤의 미술관' 행사 기간 중에는 무료로 스틱 커피 등을 제공한다.

소촌아트팩토리는 타 문화공간에 비해 접근성이 좋지 않은 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주제로 한 산단비엔날레, '광산 막걸리&사운드 페스타'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꾸준히 진행했으며 드로잉 파티 등을 통해 예술인들이 제작한 다양한 미술작품들을 공간 곳곳에 배치해 포토 스폿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062-960-3685.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



1 광주 소촌 아트팩토리에서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밤의 미술관' 행사의 미디어 파사드 작품.  
2 동방신기 유노윤호 팬들이 조성한 작은 도서관 'HUG'  
3 다양한 드로잉과 목공예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소촌아트팩토리의 낮 풍경.



최세열 '최세열 퀘넷+1' 10일 살롱드재즈

'최세열 퀘넷+1'이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거리 살롱드재즈(예술길 19-2)에서 공연을 갖는다.

2019공동재즈살롱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날 공연은 최현아(보컬), 한유랑(피아노), 최세열(베이스), 김민찬(드럼)으로 구성된 '최세열 퀘넷'에 다니엘고(색소폰)가 협연한다.

최세열은 안숙선 명장의 미국 '휴스턴 박물관' 공연부터 윤복희 미국 투어 'LA Dolby Theater' 공연 등에서 연주했으며 현재 광산대학교 음악학부 전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한유랑은 버클리 음대와 론지대학원을 장학생으로 졸업했으며, 최현아는 재즈밴드 '버건디'의 보컬이자 네이버 '온스테이지 라이브' in 벨로주 등에 참여했다. 김민찬은 2012년 '월간 재즈피플 라이징 스타'에 선정됐으며 앙림재즈페스티벌에서 '짐스나이드로 퀘넷' 멤버로 활동했다.

협연 무대를 꾸미는 다니엘고는 캐나다출신으로 버클리 음대를 졸업, 가수 이적 앨범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Blue Note NYC, Smalls Jazz Club 등 재즈 클럽에서 연주했다.

입장료 2만원. 문의 010-5035-1033.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최현아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추가공모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5일까지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할 문화기반시설(4개소)을 추가 모집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자에게 경력 개발 기회를, 문화시설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광주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125명이었다.

공모대상은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기반시설이다. 선정된 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를 필수 채용(6개월)하고, 교육사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지원 기간 내 문화예술교육사 1명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기획·운영비로 기관별 최대 2820만원이 지원된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한편 지난 3월 선정된 서구농성문화의집, 각화문화의집, 서구문화원에 각 1명의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치됐으며 사진 및 미술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문의 062-670-5771, 576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